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發掘(試掘)調査 諮問委員會 第200輯

부산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업부지내 유적
發掘(試掘)調査 諮問委員會

20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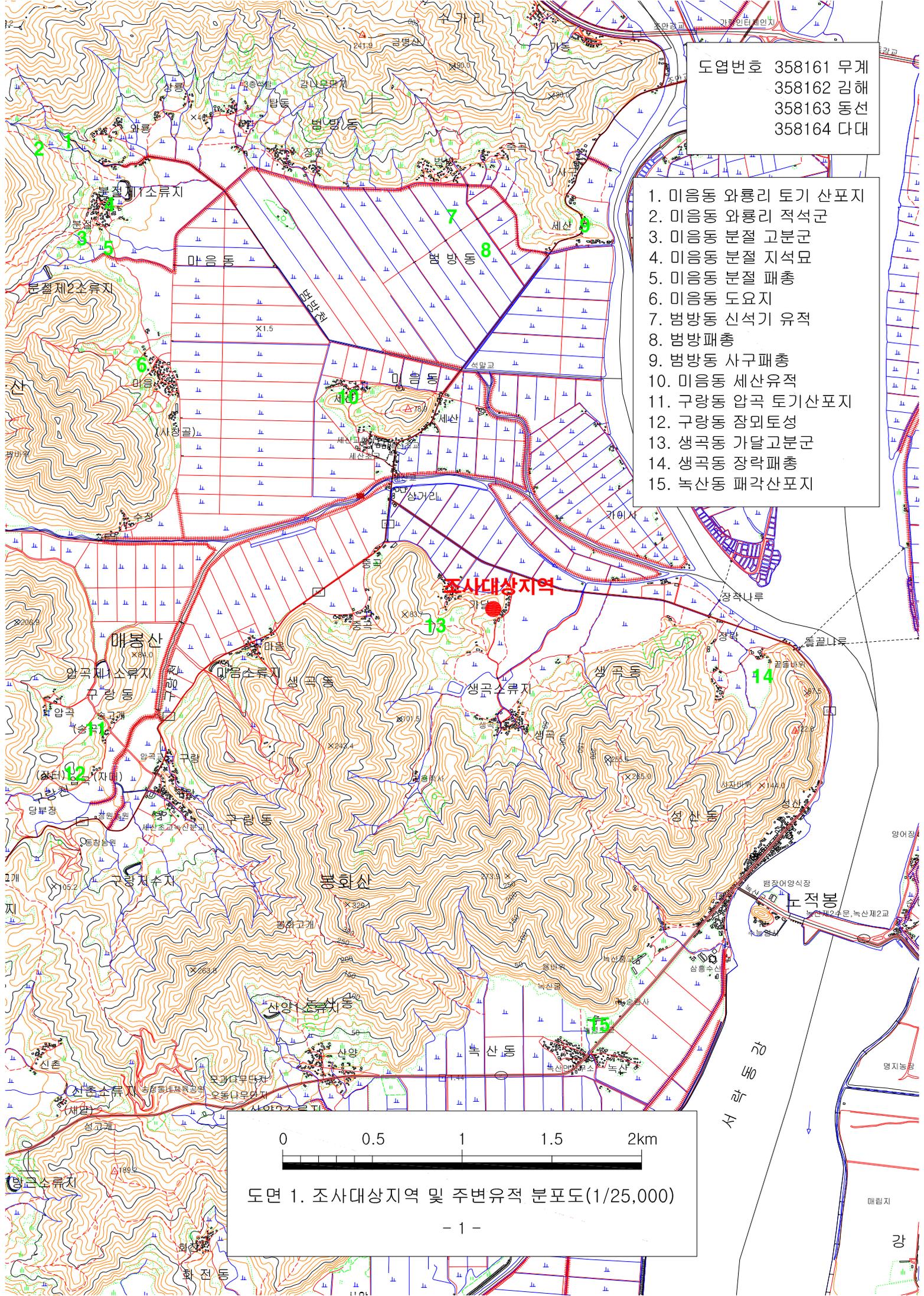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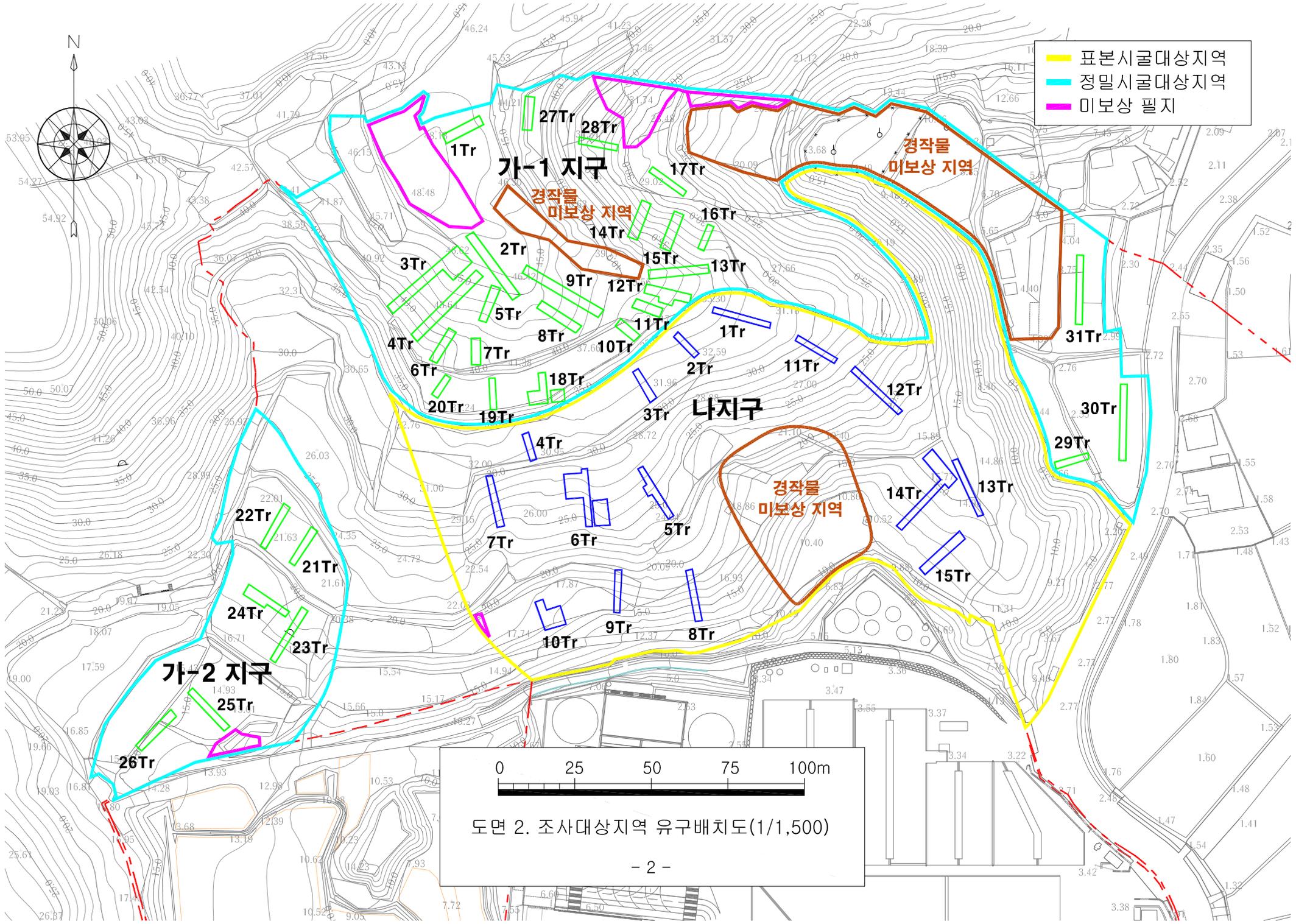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도면번호 358161 무계
 358162 김해
 358163 동선
 358164 다대

1. 미음동 와룡리 토기 산포지
2. 미음동 와룡리 적석군
3. 미음동 분절 고분군
4. 미음동 분절 지석묘
5. 미음동 분절 패총
6. 미음동 도요지
7. 범방동 신석기 유적
8. 범방패총
9. 범방동 사구패총
10. 미음동 세산유적
11. 구량동 암곡 토기산포지
12. 구량동 잠외토성
13. 생곡동 가달고분군
14. 생곡동 장락패총
15. 녹산동 패각산포지



0 0.5 1 1.5 2km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 -



- ▬ 표본시굴대상지역
- ▬ 정밀시굴대상지역
- ▬ 미보상 필지

0 25 50 75 100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유구배치도(1/1,500)
 - 2 -

I. 조사개요

1. 조사명

부산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2.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

조사대상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 61번지 일원

조사대상 면적 : 정밀시굴 구간(25,769㎡)

표본시굴 구간(20,332㎡)

3. 조사기간

2010년 4월 20일 ~ 2010년 6월 20일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5.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자문위원 : 정의도(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이은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책임조사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사원 : 조명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김경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 김병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소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기관

(주)포스코건설

II.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 61번지 일원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봉화산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는 능선과 동사면에 분포하는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2008년 4월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 및 자기편 등이 수습되어 발굴(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물이 수습된 지역은 정밀시굴조사, 그 주변은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여부와 성격 및 범위를 정확히 밝힌 후, 공사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주)포스코건설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 발굴(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남동-북서)

III. 조사대상지역 자연환경 및 주변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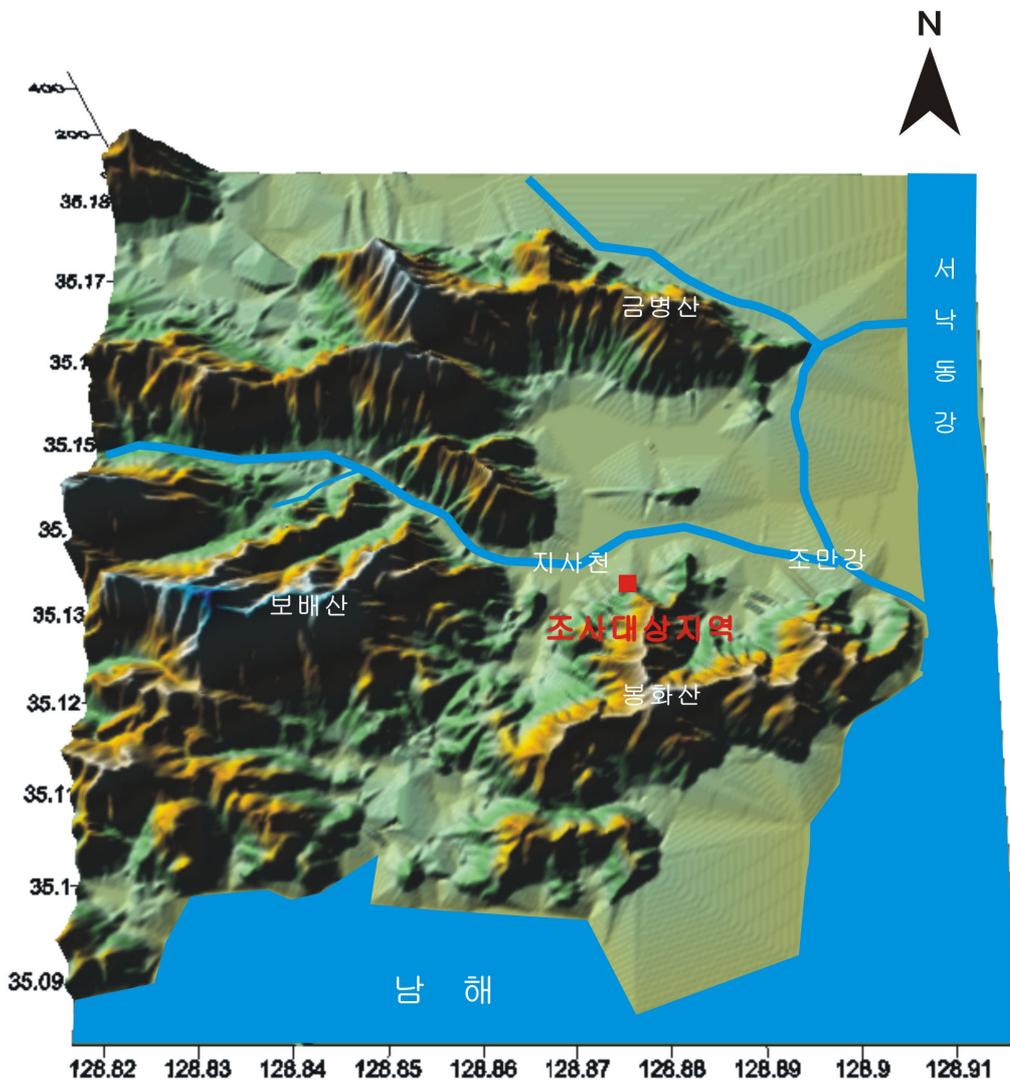
1. 자연환경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과 접해있으며 대부분 백악기에 형성된 화성암류가 분포한다. 해발고도는 높지 않으나, 산사면의 경사가 가파른 편이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서 제일 긴 낙동강의 하구가 강서

구의 중앙부에 위치함으로서 이 일대에는 상류로 운반된 많은 양의 하성퇴적물이
집적되어 광대한 충적평야인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강서구 생곡동 일원은 북으로는 금병산(242.5m) 서쪽으로 보배산(479m) 남쪽으
로 봉화산(277.8m) 그리고 동쪽으로는 서낙동강으로 접해있으며 김해시 장유면의
굴암산(651m)에서 발원한 지사천이 생곡동 일원을 서-동으로 가로지르다 조만강으
로 합류한다. 조사대상지역은 봉화산의 북쪽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능선의 정
상부는 우천이나 봉적시 분수령에 해당하므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
형이다.

조사대상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선사유적 중 범방패총, 장락패총 등은 비교적 저
지대인 충적평야에 입지하며 미음동 분절지석묘, 분절고분군 등은 금번 조사대상지
역과 마찬가지로 저구릉 말단부에 입지한다.



도면 3.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

2. 주변유적¹⁾

1) 부산 미음동 와룡리 토기산포지²⁾

미음동 분절마을에 위치한 분절 소류지 북쪽 일대에 해당하며 2005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고려시대에 걸친 토기편과 자기편이 채집되었다. 인접하는 분절 고분군과 분절 패총, 미음동 도요지 일대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부산 미음동 와룡리 적석군³⁾

와룡마을과 접한 금병산에서 뺀어 내린 저구릉의 남서사면 가운데 위치한다. 조사 구역에서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축이 노출되었고 건물지 축조 이후에 조성된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다량의 고려·조선시대 와편 및 자기편이 수습되었는데, 수습된 기와편의 문양과 공반관계를 통해 볼 때, 고려시대에 건물지 초축되었고 조선시대 초기에 한 번 중수된 후 16세기 전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의 과거 지명이 '절골'이었던 점, 인접된 탐동에 고려시대 초로 추정되는 범방리 3층 석탑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구역을 포함한 일대에 사찰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부산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3) 부산 미음동 분절 고분군⁴⁾

미음동 분절마을 입구 쪽으로 뺀어 내린 완만한 구릉 위에 위치하며 1991년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작지에서 4~5세기대의 유개고배, 단경호 등이 채집되었으며 유구는 목곽묘와 석곽묘로 추정되고 채집된 유물의 범위로 보아 대형 고분군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5년 부산신항 배후철도 공사구간에 유적의 서쪽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그 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분묘관련 유구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성황당 및 교통로 등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한겨레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1)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梁山市-』, 2004.

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구간내 와룡마을 적석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2005.

3) 주)2의 『앞의 책』, 2005

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부산신항 배후철도 구간 (分節古墳群) 시굴조사 약보고서』, 2005.

4) 부산 미음동 분절 지식묘⁵⁾

미음동 분절마을 동쪽의 분절 제 1소류지 옆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위치하며 1992년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녹산 문화유적 학술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곳에는 현재 넓은 관석 10여 개가 뺏뺏하게 놓여 있고, 관석 사이에 시멘트가 메워져 있다. 잔존상태로 보아 상석은 길이 2~4m, 두께 40~60cm 정도로 보이며 모두 3~4기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석 하부에서는 지식묘로 보이는 2~3개의 석재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기반식지석묘 일 것으로 판단된다.

5) 부산 미음동 분절패총⁶⁾

분절마을 동쪽 구릉의 말단부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해당하는데, 현재 밭과 과수원으로 경작 중이다. 지표면에 패각이 다량으로 노출되어 있었지만 오래전 닭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패각이 채취되면서 패총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1992년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녹산 문화유적 학술조사에서 확인된 패각은 굴과 고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패각층 속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유물의 시기는 대체로 4~5세기경이 중심이며, 6세기 전반대의 고배도 포함되어 있다.

6) 부산 미음동 도요지⁷⁾

미음동 남서부 감나무 과수원 일대에 위치하며, 1992년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자기편들과 초벌구이한 토기편, 소토덩어리, 자기 제작에 사용되는 도구 등이 수습되었다. 자기의 기종은 사발, 대접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병도 소량 출토되었는데, 주로 녹갈색 또는 암녹색의 유약이 투박하게 칠해져 있으며 유색이 대체로 어두운 편이고 철화의 흔적도 관찰된다. 유빙열이 있으며 유약은 기면에 고르게 시유되지는 않았다. 고려 후기의 청자계통이나 구연단이 크게 바깥으로 굽은 사발의 그릇형태 등으로 보아 그 하한은 조선시대 전기까지 내려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중이며 가마와 폐기장을 비롯하여 다량의 자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5)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녹산문화유적 학술조사보고서』, 1992.

6) 주)5의 『앞의 책』, 1992.

7) 주)5의 『앞의 책』, 1992.

7) 부산 범방동 신석기 유적⁸⁾

부산 경남 경마공원 내 관리사무소 건물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경마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어 2001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은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종 집석노지와 위석식노지 등의 유구와 용기문 토기를 포함한 즐문토기 및 석기류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인접한 범방패총을 형성한 집단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부산 범방동 범방패총⁹⁾

범방동 패총은 1970년대 초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경남지역 패총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된 이후 1991년 10월 부산박물관의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빗살무늬토기, 토우, 조개 팔찌, 골각기, 결합식 낚시바늘을 비롯하여 석기류 등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유적의 층위를 크게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제 I 문화층은 용기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 시대 전기 층으로서 결합식 낚시바늘, 석부 등과 물고기 뼈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제 II 문화층은 남해안식 태선침선문토기가 중심이 되는 신석기 시대 중기의 문화층이며, 제 III 문화층은 이중구연토기와 단사선문토기가 주체를 이루는 층으로 신석기 시대 후기의 문화층이다. 또한 신석기 시대 매장유구와 인골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9) 부산 범방동 사구패총¹⁰⁾

범방동 사구 고개 위에 있는 소규모 패총이다. 남으로 길게 뻗어 내려온 금병산 능선의 말단부 동쪽에 해당한다. 유적의 대부분이 도로 확장공사 시 삭평되어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데, 현재 소로로 정지되어 있고, 도로 절단면에 패각층 단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길이 15m, 너비 3m 정도이며 최대 깊이는 220cm 정도인데, 퇴적층은 굴 껍데기와 꼬막 껍데기들이 혼입된 혼패토만 보이고 순패각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8) 부산광역시립박물관, 『A/G 승마경기장내 범방유적』, 2001.

9) 부산직할시립박물관, 『범방패총』 I, 1993.

부산직할시립박물관, 『범방패총』 II, 1993.

10) 주)5의 『앞의 책』, 1992.

10) 부산 미음동 세산유적¹¹⁾

범방패총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세산마을 부근의 독립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시립박물관에서 1991년 범방패총을 발굴하는 도중, 이곳에서 신석기시대 타제석부 1점이 채집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채집된 석기는 이암 혼펠스체의 인부마연 타제석부이며, 인부는 잘 마연된 합인석부로 신부는 양방향을 타제 조정하였다. 단면은 렌즈형을 이루며, 크기는 길이 14.8cm, 너비 6.4cm, 두께 2cm 정도로 범방패총에서 출토된 타제석부와 형태·제작기법 등 동일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범방패총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11) 부산 구랑동 압곡 토기산포지

구랑동 압곡마을 정남쪽에 위치하는 낮은 구릉상에 분포하고 있다. 구릉은 도로에 의해 절단되어 현재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적은 도로의 서쪽 편이며 현재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구릉 정상부 주위에 분묘 수십 기가 조성되어 있다. 채집된 유물은 극히 소량으로 주로 연질토기편이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유적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채집된 유물로 보아 대체로 6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부산 구랑동 잠피토성¹²⁾

잠피는 구랑과 대압 사이에 있는 산으로 주민들이 매년 봄, 음력 3월3일이나 4월 초과일에 마을제를 지냈으며 잣메, 자메, 자매 혹은 월잠산(月蠶山)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산 허리부분에 잠피 마을이 있고 이 마을 위쪽에 산성으로 불리는 토성이 있다. 성 내부의 산정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기와편이 다수 채집되었다. 성벽의 높이는 약 5m이며 편축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 동북쪽 성내에 경작지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를 개설하면서 성곽의 단애면이 드러난 곳이 있다.

13) 부산 생곡동 가달 고분군(부산시 기념물 제 43호)¹³⁾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생곡동 가달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표고 84m 정도의 나지막한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뺀 표고 52m 정도의 평평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1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1997.

12) 부산광역시사편집위원회, 『부산지명총람』 제 5권, 1999.

부산광역시사편집위원회, 『강서구편』, 1999.

13)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생곡동 가달고분군』 I, 199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생곡동 가달고분군』 II, 2001.

조성되어 있다. 1983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9~1990년에 걸쳐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구릉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에서 5~6세기대의 수혈식 석곽묘, 동북쪽 사면에는 4~5세기 전반대의 목곽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는 모두 26기로 수혈식 석곽묘 15기, 소형 석곽묘 7기, 목곽묘 2기, 옹관묘 2기 이다. 수혈식 석곽묘 대부분이 도굴되었지만 토기류 170여점, 철기류 100여점, 기타 장신구류 30여점 등 3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고배, 대부장경호, 원저단경호, 파수부옹, 연질옹, 소형 파수부호 등으로 다양하며 고배는 금관가야지역의 재지적 특성을 가진 토기와 신라양식, 창녕양식 등 외래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14) 부산 생곡동 장락패총

녹산교에서 미음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산이 끝나는 부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돌끝'이라 불리는 곳으로 5~6채의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패총은 그 중앙부에 해당하는 밭과 주변 주택지에 형성되어 있다. 약 20여 년 전에 닭 사료와 석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패각을 대부분 채취하여 파괴되었다고 한다. 청동기시대의 원형점토대토기 평저편, 마제석기 등과 삼국시대 이후의 경질토기편 등이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패총의 형성은 청동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5) 부산 녹산동 패각산포지¹⁴⁾

1992년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녹산동 녹산중학교와 녹명초등학교 사이 급경사의 언덕과 얇은 바위 주변에 패각과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와 경질토기편 등이 채집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삼한~삼국시대에 형성된 패총일 것으로 추정되나 유적의 일부분만 노출되어 있어 정확한 연대 파악이 곤란하다. 또한 녹명초등학교 건립 당시 그 곳에서 다량의 패각을 굴취하였다고 하는데, 이 패각이 지금의 유적과 관련이 있는지 별개의 유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4) 주)5의 『앞의 책』,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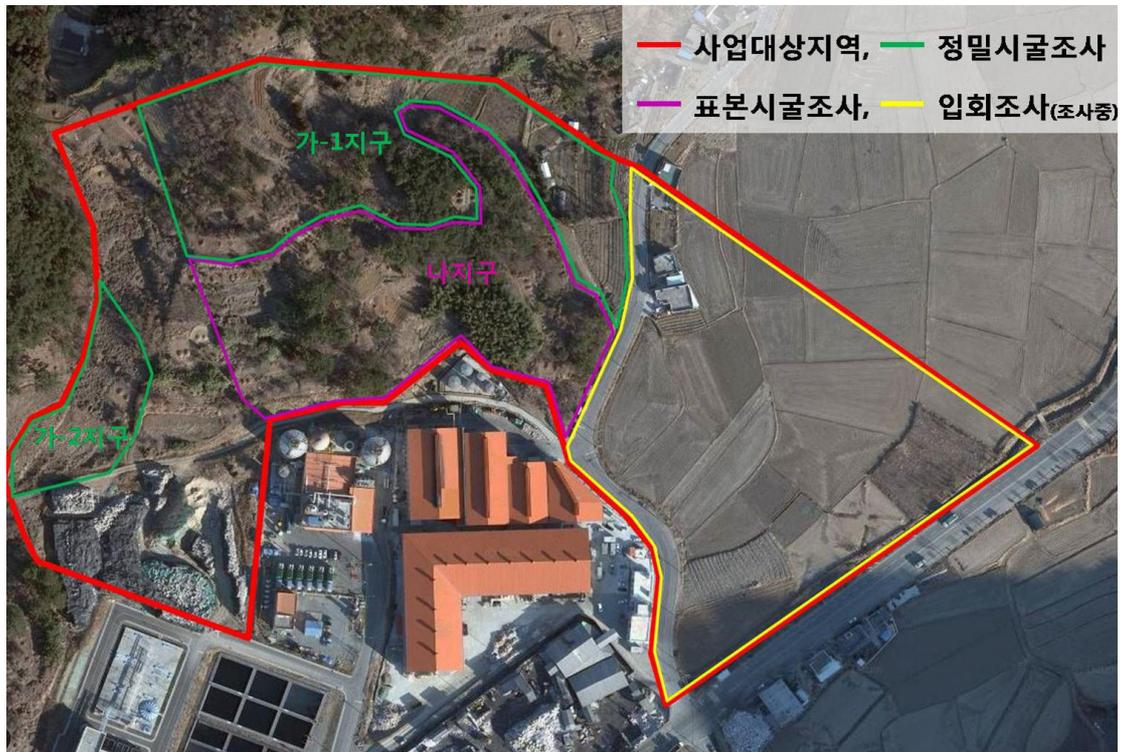
IV.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시굴구간과 표본시굴구간으로 나뉘며, 편의상 정밀시굴구간을 ‘가’지구, 표본시굴구간을 ‘나’지구로 명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밀시굴구간 중 북쪽 구릉정상부 및 남사면·동쪽 곡부를 가-1지구, 서쪽 곡부를 가-2지구로 추가명명하였다.

가-1지구와 나지구는 북쪽 구릉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사면부와 동쪽편 곡간부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최근까지 밭·과수원 등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며, 일부에는 현대분묘가 잔존하고 있었다. 가-2지구는 곡간부로 최근까지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조사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길이 10~30m, 너비 2~3m 규모의 트렌치를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확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지역의 퇴적양상과 매장문화재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

1. 조사내용

1) 가지구(정밀시굴조사 구간)

가-1지구는 북쪽 구릉정상부와 동쪽 곡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2지구는 서쪽 곡부말단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역은 최근까지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과수원 및 계단식 논·밭으로 경작되면서 원지형의 훼손이 심한 편이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경작물이 보상되지 않은 구간과 미이장된 분묘가 다수 잔존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서쪽에 입지하는 가달고분군의 존재를 인식하며 총 31개소의 트렌치를 등고선과 직교되는 방향을 기본으로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2·7트렌치

조사대상지역의 정상부와 서편 능선부에 설치한 2·7트렌치는 가-1지구에 위치하며, 조사결과, 현재 지표아래 10~30cm 정도 깊이에서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이 노출되었다. 트렌치 바닥면과 단면에서 유구나 유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판 3. 2트렌치 전경(북-남)



도판 4. 2트렌치 토층 전경(북서-남동)



도판 5. 7트렌치 전경(북동-남서)



도판 6. 7트렌치 토층 전경(북-남)

(2) 12트렌치

12트렌치는 가-1지구의 동쪽 사면부에 해당하며 두께 10~30cm 정도로 형성된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노출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트렌치의 중앙부 남벽 부근에서 분묘의 묘광 윤곽선이 노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길이 3m, 너비 1.5m의 규모로 확장 제토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판 7. 12트렌치 전경(북서-남동)



도판 8. 분묘 1 조사전 전경(남동-북서)



도판 9. 분묘 1 토층상태



도판 10. 분묘 1 조사후 전경(남동-북서)

분묘는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272cm, 너비 78cm, 잔존 깊이 68cm 정도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남동-북서향이며 내부토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수평퇴적된 양상이다.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분묘의 정확한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근·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지역에 비교적 촘촘한 간격으로 다수의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나 다른 분묘는 조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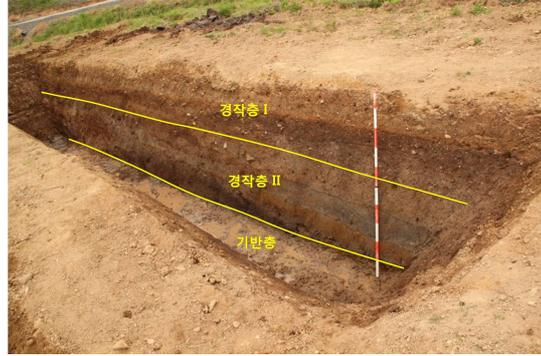
(3) 26트렌치

26트렌치는 가-2지구로 조사대상지역의 서쪽 곡부 말단부에 해당하며 최근까지 경작되던 곳이다. 표토층(경작층) 아래로 산화철·망간 집적층이 반복되어 두차례에 걸친 경작층이 관찰되며 트렌치 상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소량 검출되었으나 개체가 작고 마모도가 있다. 북쪽 사면 정상부에 입지하는 가달고분군에서 아래쪽인

곡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11. 26트렌치 전경(북서-남동)



도판 12. 26트렌치 토층전경(서-동)

(4) 28트렌치

28트렌치는 가-1지구 동쪽 곡부에 해당하며 1.5~2m의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표토층 아래에 적갈색의 곡부 퇴적층이 그 아래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고, 퇴적양상은 경사면을 따라 자연퇴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렌치의 바닥면과 단면에서 유구 및 유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판 13. 28트렌치 전경(북서-남동)



도판 14. 28트렌치 토층전경(서-동)

2) 나지구(표본시굴조사 구간)

표본시굴구간인 나지구는 지표조사 당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가지구의 주변지역으로 남쪽 능선부와 남동쪽 능선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까지 근·현대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과수원 및 밭 등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길이 10~30cm, 너비 2~3m 규모의 트렌치를 총 15개소에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7·8트렌치

나지구 남쪽 사면에 설치한 7·8트렌치는 조사결과, 현재 지표아래 10~30cm 정도 깊이에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노출되었다. 트렌치 바닥과 벽면에서 유구 및 유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판 15. 7트렌치 전경(북-남)



도판 16. 7트렌치 토층 전경(북동-남서)



도판 17. 8트렌치 전경(북-남)



도판 18. 8트렌치 토층 전경(북동-남서)

(2) 11·13트렌치

나지구 동남쪽 사면에 설치한 11·13트렌치에서는 현재 지표면 아래 10~30cm 정도 깊이에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노출되었으며 트렌치 바닥이나 단면에서 유구나 유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판 19. 11트렌치 전경(북서-남동)



도판 20. 11트렌치 토층 전경(북-남)



도판 21. 13트렌치 전경(북서-남동)



도판 22. 13트렌치 토층 전경(동-서)

V.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1. 조사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 61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부지에 해당한다. 2008년 4월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에서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 및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유물이 집중 출토된 지역은 정밀시굴조사, 주변지역은 표본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삼국시대 생곡동 가달고분이 조사대상지역의 바로 서쪽 능선 상부에 입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다.

2. 조사대상지역은 편의상 정밀시굴구간을 ‘가’지구, 표본시굴구간을 ‘나’지구로 명명하고, ‘가’지구는 다시 지형에 따라 가-1·2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곡부를 포함하는 낮은 구릉성 산지로 정상부와 남사면을 중심으로 삼국~조선시대의 분묘군의 존재 가능성이 높고, 곡부쪽으로는 이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길이 10~30m, 너비 2~3m 규모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진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확장조사를 실시하여, 퇴적양상과 매장문화재의 존재유무 파악에 주력하였다.

3. 조사결과, 가-1지구의 구릉 정상부와 남사면부는 근현대 조성된 분묘와 계단식 절토에 의한 과수경작 등으로 원지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였으며, 지표면에서 10~30cm 정도 아래에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노두되는 상태로 유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곡부에 해당되는 가-2지구는 퇴적층이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나, 상부에서 마모도가 있는 경질토기편 소량만이 수습될 뿐 가달고분군과 관련된 유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지구 또한 후대의 과수경작과 분묘의 조성으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으며, 구릉 상부에서 퇴적된 자연 퇴적층만 잔존하는 상태로 인간활

동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4. 조사대상지역 일대는 최근까지 과수원 및 논·밭, 분묘 등을 조성하면서 원지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로 조사결과 인간활동과 관련된 유적은 잔존하지 않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유적의 분포가 예상되는 가달고분군과 연결하는 남서쪽 구릉 일대에 대해서는 추후 개발행위가 수반될 시에는 반드시 학술조사가 선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발굴(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諮問委員會 第200輯

부산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업부지내 유적

發掘(試掘)調査 諮問委員會

인 쇄 일 / 2010년 5월 18일

발 행 일 / 2010년 5월 19일

編輯·發行 /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